재밋섬 타당성 검토 종료…매입 여부 촉각

아트플랫폼 검토위 5차 회의 종료

문예재단 집담회 개최해 의견 수렴

상반기 안으로 사업 추진 여부 판단

찬반 여론·도의회 승인 여부 변수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꾸린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가 최근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친 가운데 최종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직무대리 김가영)은 재단이 최근 5차에 걸친 검토위 회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를 종료하고 이르면 다음 달쯤 집담회(공개토론회)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타당성 검토위는 ▲타당성 검토 ▲집담회(2차례) ▲찬성반대 의견 종합검토 ▲최종 추진 여부 검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5차 검토위 회의 결과 재밋섬 매입 시도 당시 감정평가 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문제에 대해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미흡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공감대 미형성 건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재단은 이를 토대로 집담회를 두 차례 개최해 문화예술계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위에 제출하고, 이를 6차 검토위 회의 때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3월 말쯤으로 계획됐던 집담회가 4월쯤으로 미뤄진 가운데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는 검토위를 종료해 재밋섬 건물 매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아트플랫폼은 재단이 제주시 삼도2동 재밋섬파크 건물을 매입해 공공 공연연습장과 오픈오피스, 공연장 등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과정서 제기된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지난해 한 정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으나 같은 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재밋섬 매입 타당성 검토위가 출범했다.

재밋섬 매입 추진 시 100억원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20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도내 문화계에서는 현재 찬반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검토위에서 통과돼도 제주도의회의 승인 여부도 변수로 남았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근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친 가운데 최종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재밋섬 건물 전경.

코로나 도내 예술계 피해 2억5천만원

한국예총 코로나 영향 보고서 발표

제주예총 소속 단체 행사 취소 15건

문화예술계 지원 추경 편성 등 제언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이하 제주예총) 소속 문화예술계의 올해 1~4월 간 피해액이 2억5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는 지난 18일 보고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현장 예술인의 활동에 미치는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예총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회원 협회 및 연합회·지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예총 소속 단체의 경우 올해 1~4월 사이 취소·연기된 문화예술행사 규모는 총 15건으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예총에 소속되지 않은 채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피해액이 수치에 포함될 경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예총을 비롯 한국예총은 보고서를 통해 ▲문화예술계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정책 지원 ▲추경 편성에 문화예술계 지원 반영 절실 ▲문화예술 생태계 수치·체계화할 지수 개발·도입 절실 ▲문화예술계 유통망 마련 확대 등을 제언했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소암기념관 교육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은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0년 상반기 교육(실기)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서예와 한국화 실기 강좌가 마련된다. 강사는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강경훈 작가와 박순민 작가가 나선다.

신청 대상층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넓으며 운영 기간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이다. 수강생은 강좌별 15명을 모집하며 접수 후 공개추첨을 통해 수강생이 최종 선발된다. 공개 추첨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기당미술관에서 진행된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예술의전당 무대시설물 '안전'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원활한 공연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대시설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무대기계, 음향, 조명 등 3개 분야로 실시됐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점검을 통해 무대기계 전동기와 브레이크를 교체했고 작업자 안전을 위해 무대조명 발코니의 고무판도 새로 설치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제주학 학술세미나 지원사업 공모

총 4개 단체 최대 450만원 지원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는 오는 31일 오후 4시까지 '2020년도 제주학 학술세미나 지원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학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을 통해 제주학 연구의 활성화와 연구자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학술세미나 지원 대상은 ▲제주학 연구 기관·단체 ▲제주학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를 원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단체당 최대 450만원까지 총 4개 단체의 학술세미나 개최 비용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www.jst.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개발공사 '물 위기' 극복 유네스코 운동 동참

대한민국 대표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유네스코와 함께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물 문화 창출 운동에 동참한다.

제주개발공사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물박물관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창립한 유네스코 물박물관 글로벌 네트워크는 새로운 물 문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 현재 이탈리아와 영국, 중국 등 28개국·52곳이 가입돼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전 세계 물박물관과 연계해 수자원 공유의 가치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만이 가진 독특한 물 역사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제주삼다수로 대표되는 제주 물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주연구원 작년 연구 요약집 발간

제주연구원은 지난해 연구·사업 결과를 집대성한 '2019 연구결과 요약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 요약집은 도민이 필요한 연구자료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됐다.

연구결과 요약집에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73건의 주요 결과가 담겼으며 정책세미나 주요 결과, 제주데이터센터와 중국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실적 등도 실렸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주 詩窓 | 잔상

낡은 헛간 속
둥글고 뾰족한 농기구에서 섶가리까지
만물상은 풍요롭다

그곳에 허름한 볏짚을 품고 있던
씨암탉 한 마리
툭툭, 홰를 치고 나오면
노란 김 오르는 알 하나
송곳니로 톡톡 까서 호로록 삼키는 닭의
자양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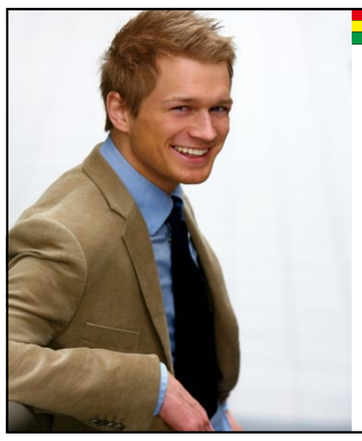
뒤뜰 감나무에 걸어둔 꿈이 맹목으로 자라나도
어머니의 삼백육십오일이 통증으로 깊어도

만물상 그곳은
내 영혼을 관통하는 어머니의 자양분이다

곽문연 | 2003년 '문학마을' 등단
시집 '단단한 침묵'

고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마을로 들어가는 고샅, 어귀를 지키고 있는 노거수, 바람이 넉넉히 드나드는 담장, 삐걱거리며 누구에게나 열리는 대문, 누런 황소가 긴 울음을 울던 외양간, 그리고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그리움. 설에 고향에 다녀오셨나요. 그리운 고향은 여전하던가요.

-변종태(시인)



양복점 제일사 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1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이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6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만	30만
고급	〃	40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1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영업시간: AM 9시~ PM 9시 일요일은 쉽니다.
NAVER 제 일 사 검색